

특집 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김 현 실
간호학박사/교수
경산대학교 간호학부

I 서론

청소년기는 더이상 아이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아직 성인도 아닌 대략 8~9년간의 시기로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 다닐 연령인 16~18세는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는 정체성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며 보다 성인과 가까운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시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1~2년 일찍 시작된다. 청소년기의 시작은 대부분 11~14세 사이에 시작되어 18~21세에 종결짓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11~15세의 조기청소년기를 사춘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는 소녀에게는 초경, 소년에게는 체모의 출현으로 시작되는 성적 성숙이 특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춘기의 특징적인 성적 성숙에 이어 청소년들은 도덕적, 종교적 가치와 더불어 지적 능력의 증대와 다양한 관심사의 출현으로 계속 한사람의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정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가장 당혹스럽게 하며 또한 가장 많은 의혹을 갖게 하는 대상은 아마도 성에 대한 것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성적 성숙과 성적 느낌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어 왔으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이는 계속 난제로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 첫번째 요인은 오늘날의 한국의 가정과 학교가 성교육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입시열풍 속에서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라는 부모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수면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전전하며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요인은 체계적인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실시할 전문가와 관련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번째 요인은 오늘날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영상매체를 통한 왜곡된 성문화의 창출과 실제와 다른 성정보의 전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당혹스럽게 하는 성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구하지 못한채 걸으로는 학교만 오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청소년들이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시열풍 속에서 입시 열기가 치열할수록 청소년들은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공상적 이성관계에 빠져들게 되며 이를 부추키는 것이 비디오, 영화등의 영상매체와 잡지, 만화 등을 통한 무분별한 성적 묘사와 이로인한 왜곡된 성적 인식의 조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잡지

나 연예일간지 등을 통한 잘못된 성지식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마치 자신이 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어른스러운 성적 행동을 시도해 보려는 무의식적 욕구에 봉착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문제를 낳게되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은 성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 온갖 왜곡된 성과 잘못된 애정 행각으로 점철된 대중문화라는 거리속을 정처없이 부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속에서 그간 중·고등학교에서는 가정시간이나 생활시간, 체육시간등에 몇시간씩을 배정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내용이 남녀의 신체적 특성과 생리적 차이에 초점을 둔 생물학적 내용이 주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교육이 생물학적 관점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성자체에만 역점을 두어서는 바람직한 성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모든 청소년에게 남녀의 생식기관의 차이, 그 기능이나 특성에 대한 대략적 소개는 물론 이루어져야 하나 성이 인류문화의 발전과 존속을 위한 주요 기전으로써 논의 되어야 하며, 생물학적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인간관계적 맥락에서 남녀의 성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내용으로 '인간과 성' '성적욕구와 성행동' '성과 건강' '성과 결혼' '혼전 성관계' '피임과 낙태' '근친상간' 등의 주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 교육 내용은 다음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Ⅱ. 성교육의 내용

1. 인간과 성

인간은 광범위한 관계망 -남편-아내, 부모-자녀, 형제-자매, 늙은 사람-젊은 사람, 선생-학생, 의사-환자, 구매자-판매자, 고용주-고용인, 기사-승객 등- 속에서 살고 있다.

더불어 다른 인종, 타종교, 및 다른 사회계층간의 사람간에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인류문제의 대부분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과 특성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사회는 -원시사회이든, 개발사회이든 간에- 풍습, 관계, 종교 또는 법에 의해 개인간의 관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가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활동중 많은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누구도 자신이 좋아하는일을 모두 하면서 살 수는 없다. 누구도 살인, 강도, 강간, 난폭운전,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 따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통제하고, 음식물이나 의약품의 판매를 규제하고, 무역협상을 관리하고 개인의 삶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소년이 알 필요가 있는 두가지 일반적 원칙이 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한 비차취의 법칙으로 인간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Kant의 말을 빌어 표현하면 '인간은 항상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목적으로써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행동과 관련된 두번째 행동원칙은 인간은 타인을 해치거나 착취하지 말아야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장기적 안녕과 이웃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차취와 타인의 안녕 및 복지 증진 이라는 두가지 주요 원칙은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

어진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기초가 되며, 공정한 운동경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차를 몰며,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은 이성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청소년이 이러한 원칙을 이성관계를 포함한 자신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는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얼마나 안정감, 적절감을 느꼈는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성행위와 성적관계는 어떠한가? 자위행위를 제외하고 대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성적관계 또한 원시사회든 현대사회든간에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역사를 통해볼때 성에 대한 태도와 성적활동을 개인이 속한 어떤 특정사회내에서의 일반적인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요인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조절은 경작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전쟁을 위해 많은 병사가 필요한 사회에서는 필요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인구폭발과 식량부족의 위협에서는 출산조절이 필요한 나라도 있다. 또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적 가치관은 낙태, 출산조절, 간통, 혼전성교 및 혼외성교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계층간, 인종간, 종교집단간에도 다양한 성규범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성규범이 매우 다른 이중잣대도 흔히 볼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는 학자도 있으며, Jessie Bernard는 이를 '제4의 혁명'이라고 지칭하였다. 즉 오늘날의 성적태도와 성적행동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을 이해함으로써만이 적절히 이해되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나 교사들은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의 성적무지와 성적혼돈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봄으로써 성에 대한 또다른 관점과 시각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2. 성적욕구와 성행동

사람들은 성행동에 대하여 저마다의 느낌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견해중 하나는 자손번식을 위해서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충동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받아 들여야하는 수치스러우면서 혐오스러운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관점으로는 종족보존뿐만 아니라 개인적 행복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이며 매우 자연스러운것으로써 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성에 대하여 말을 할때는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실제로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부터 성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며 성행동을 단지 혼외정사나 혼전성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적관계에 내포된 주제는 자연적이며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한 개인의 성관계에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개인적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적 양심의 문제이다.

관련분야의 학자나 전문가가 하여야하는 또다른 과제는 바로 이러한 주제를 조명하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결과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성태(sexuality)와 성적행동은 개인의 가치관, 인격, 개인의 희망 이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기본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성적 윤리성은 한 개인으로써 우리 모두가 대답하여야 하는 문제 이다. 특히 혼전성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분석에서 Reiss는 4가지 유형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①혼전성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 ②서로 사랑한다면 가능, ③애정과 관계없이 서로 동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가능, ④남성에게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여성에게는 언제든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인간의 성적행동에 대한 선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함께 이러한 선택을 취하게 하였던 인간의 성적욕구와 결과론적으로 취해질 성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또한 이 부분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정상 성욕구와 성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성생리

인간의 성반응은 사춘기에 이르러 급격히 성숙한 인간의 생식기관과 기능의 발달로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성반응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적자극의 역할과 신경계, 내분비계 및 혈관계의 반응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성적자극은 두가지 범주로 나눌수 있는데 이는 성감대의 직접적 자극과 성적공상이나 생각, 후각, 시각, 청각 등을 통한 심리적 자극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가지 자극 모두를 통하여 성적욕구를 느끼게 된다. 신경계는 성적자극을 촉진시켜주는 전달체제로써 인간이 성적자극에 노출되었을때 이것은 뇌나 척수로 부터 말초신경계로 전달되게 된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는 성적흥분시 함께 작용하여 남성에게는 발기현상, 여성에게는 성기에 윤활물질의 분비로 성관계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진다. 이와함께 성적흥분이 증가됨에 따라 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 심박동수의 증가와 혈압의 상승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인간의 성적흥분은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것이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란 물질이다.

내분비계도 인간의 성적 반응에 주요역할을 하게된다. 성 및 생식기능과 관계된 호르몬은 시상하부의 통제하에 내분비선에서 분비하게 된다. 시상하부는 호르몬조절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성기능과 관련된 내분비선으로는 뇌하수체 전엽, 부신, 성선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으로는 여포자극 호르몬, 황체화 호르몬, 프로락틴등이며, 여성의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남성의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며, 이들 호르몬은 여성을 여성답게, 남성을 남성답게 하여주는 사춘기의 출현과, 남녀의 지속적인 성적 성숙,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까지 관여하게 된다. 혈관계 또한 성기능 및 성적반응에 주요역할을 하게 된다. 이 대표적 예로 남성의 발기현상을 지적할 수 있는데, 발기현상은 음경의 발기조직내의 혈관에 혈액이 고임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2)성반응 주기

인간의 성반응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4단계의 주기를 거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여기에서 4단계는 흥분기, 고원기, 절정기 및 완화기를 이룸이며 이들 각 단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흥분기는 성적느낌의 발단으로 이 시기에 점차 혈압과 심박동수가 상승하고 호흡이 깊고 빨라지며 피부반점이 나타날수도 있다. 남성에게는 발기현상이 일어나며 여성에게는 질분비물의 분비로 외음부가 촉촉해지는 시기이다.

고원기는 성적흥분이 보다 강해진 시기로 남성의 음경은 더욱 팽창되고 고환이 평소보다 커질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질벽의 혈관충혈로 외음부가 평소보다 증대되고 부풀어오른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절정기에서는 성기의 혈관충혈과 근긴장등으로 야기된 일종의 반사작용인 성적절정감을 보이게 되며 남성은 이 시기에 정액을 분출하는 사정이라는 현상을 보이게되며 여성은 이 시기에 회음부 근육의 규칙적 수축을 보이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완화기는 이상에서 기술한 일련의 변화로부터 신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시기이다.

3. 성과 건강

인간의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요인중 하나가 인간의 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한 성생활이란 건강한 삶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성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성에 의해 전달되는 질병을 들 수 있다. 이를 성병이라 하며 대표적인 성병으로는 매독과 임질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새로운 성에 의한 질병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흔히 성병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감염된 사람의 침대시트나 소지품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실제 매독이나 임질균등은 대기에 노출되었을때나 비누나 물 등으로 세척함으로써 쉽게 사멸될 수 있는 균들이다. 이들 성병은 또한 모든 인종, 모든 연령층,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서 발병 가능하며, 남성과 여성간에 성관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성끼리 또는 남성끼리의 동성애관계를 통해서도 전염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가지 피임기구가 성병을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며, 성병은 예방접종에 의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 감염된 후 치료받았다고 해도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걸릴 수도 있으며 여러가지 성병이 함께 감염될수도 있다.

성병은 매춘여성과의 성관계나, 또는 매춘여성은 아니더라도 여행중에, 술집, 댄스홀, 야간업소 등에서 일하는 여성과의 우연한 성관계로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완전한 성병 예방책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오늘날은 성개방 풍조로 매춘여성이 아닌 평범한 여성이나 남성과의 성관계로도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또한 매독이나 임질의 초기단계 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반면에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였을때 매독균은 수년이상 체내에 매복하고 있다가 심장, 척수, 뇌와 같은 주요장기를 침범할 수도 있다. 임질 또한 청소년들 중에는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며 임질은 조기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관과 난관을 폐쇄시킴으로써 남녀 모

두에게 불임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다음에서는 성병에 대한 증상과 성병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측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병의 증상

매독의 주증상은 주로 외음부에 경성하감이라고 부르는 표피성궤양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성하감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며 감염후 10일에서 3개월 정도, 평균 3주정도 나타난다. 통상 고통은 없으며 2주정도 후에는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나 병원균은 계속 남아 나중에 인체의 주요기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성의 경우 이 궤양성 병소는 거의 대부분 음경에서 볼 수 있으며, 여성은 외음부, 질, 자궁경관 등에서 볼 수 있다.

근래에는 구강성교가 증가함에 따라 구강내에서 경성하감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성관계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교육내용 중 하나는 증상을 조기에 확인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일이다. 매독과 임질은 개인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해주는 의료혜택이 보건소 등에서 실시되고 있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때 스스로 감염이 의심되는 청소년들은 즉시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된다. 이 경우 평소 청소년이 믿고 따르는 교사나 선배가 있다면 이들은 교사나 선배로부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임질은 감염된지 2~7일후 남성에게는 음경의 자극과, 배뇨시 작열감과 누런 농이 흐를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도 농액성 삼출물이 분비된다. 한편 여성에게서의 임질감염은 80% 이상에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자각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임질이 치료하지 않아도 증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2) 성병에 대한 교육

부모와 교사는 그들의 자녀와 학생들에게 성병의 감염경로, 증상, 치료받을 수 있는 곳(예를 들어, 보건소, 비뇨기과의원, 일반종합병원 등), 치료의 유형(예를 들어, 페니실린 투여 등)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줄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성병등과 같은 성에 관련된 지식이 일반 성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모르고 있으며, 또한 알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정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는 속단은 금물이다.

한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중에서 성병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단지 10% 내외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미공중보건성(U.S. Public Health Service) 자료에 의하면 보고된 성병감염자중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확한 통계보고는 없으나 적지않은 청소년들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점차 성병과 성병예방을 위한 교육이 중, 고등 학교의 정규교육시간의 교육내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청소년 성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투쟁은 교육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 복지, 도덕적 차원 및 법적차원 등 여러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병예방교육에서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혼전성관계를 도덕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비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필요이상 조장시켜 그들이 성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을때 치료받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지를 단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혼전성관계

오늘날의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은 성행위를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선택한 개인적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행위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인가? 이는 청소년들이 혼전성관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및 생리적 사실과 자신의 성행위가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가족, 친구, 나아가 사회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 그들이 잘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성행위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개인의 가치관에 달려있을뿐만 아니라 이보다 또래로부터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보고를 미루어볼때 성행위에 대한 선택 자체도 이미 개인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혼전성관계의 심리적, 사회적 및 생리적 요소와 혼전성관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혼전성관계의 심리적 요소

청소년들은 성이 전인격의 한부분이며 인간의 성행위는 생물학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중 하나인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성'이라는 이름의 신체적 접촉을 불러올 수 있으나 이러한 애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성관계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충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사랑은 상대방의 장기적인 안녕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이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어린 감정과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가 만족한 성관계와 지속적인 이성관계의 필수요소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랑없는 성관계는 함정이며 망상일 뿐이다. 절실하게 사랑을 원하는 남녀는 우연한 성관계를 진실한 애정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서로 사랑하는 상태에서의 혼전성관계가 점차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일시적인 열병과 진정한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십대들은 쉽게 감정에 휩쓸려 이러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부모나 교사는 적절한 조언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십대들이 저지르는 많은 무책임한 성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녀들은 남자친구의 성적요구를 허용하지 않았을때 더이상 데이트 신청을 받을 수 없으며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또 비행 청소년 집단에 가담하게된 청소년들은 집단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성관계를 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사실 자신의 성행위에 대하여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독립에 대한 욕구 또한 청소년기 성적행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또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 몸짓으로 성행위를 하게 된다.

인정에 대한 심리적 욕구는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십대들의 열망에서 쉽게 엿볼수 있다. 즉 많은 십대들은 친구들이 자신을 어린아이가 아닌 '남성' 또는 '숙녀' 로 대접해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 바램 속에서 성행위를 하게 된다.

자존감에 대한 욕구는 성행위와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그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느냐가 인간행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십대청소년들은 자신의 남성성(masculinity), 또는 여성성(femininity)을 입증하기 위해 혼전성관계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시험적인 혼전성관계에서 자신이 성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낀 청소년들은 고민에 빠질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혼전성관계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깊은 죄책감, 두려움, 스스로에 대한 경멸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며, 성병, 원치않는 임신, 부모, 친구 사회로부터의 질책에 대한 두려움은 청소년기의 자기개념 형성에 크나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

다시말하여 성은 결코 생리적 현상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의 한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성교육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이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흥분된 성적 감정은 너무나도 강하여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억제할 수 없었던 성적 충동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져 자신의 삶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장기적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책임있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신중한 선택과 성실한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을 배려할 수 있을때 동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심리적 욕구 또한 충족될 수 있는것이다.

2) 혼전성관계의 사회적 · 생리적 요인

청소년들은 혼전성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 생리적 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성관계, 임신, 출산과 같은 일들이 십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부모와 교사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십대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즉 이들은 원치않는 임신이 가져올 학업중단, 친구나 교우와의 관계결렬, 사회적 비난, 이로인하여 어린나이에 할 수 없이 결혼을 함으로써 파생될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대상은 항상 여성이었으나 현대에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고통과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하게된 결혼이든 아니든간에 여러 연구에서는 십대결혼의 실패율이 20대 이후의 결혼보다 무려 3~4배나 높은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린나이에 결혼한 십대부부들은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으며, 결혼생활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나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제시하여 준다기 보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십대의 결혼은 또한 그들이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책임을 떠맡기에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실패하기 쉽다. 이들은 아직 가정에 정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아직도 계속 또래들과 어울려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한다.

혼전성관계가 미래의 결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청소년과 논의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앞으로 일어날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사회가 급속히 개방적이됨에 따라 혼전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인가와 관계없이 혼전성관계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과 개인적 믿음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전성관계가 개인적 문제가 되었을때의 현실은 그 사회의 개방정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스스로를 신세대라고 자처하는 청소년조차도 자신의 성적선택에 대하여 그들 부모와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를 보일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은 혼전성관계에 대해서조차도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치않는 임신’이라는 함정에 빠진 청소년들은 사생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사생아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전보다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중요한것은 사회적 태도가 아니라 사생아들이 받게될 사회적 불이익과 고통인 것이다. 또한 아이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하게된 경우, 부모들은 아이를 자신의 발목을 잡는 구속물이라고 생각하여 아이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십대들은 또한 사생아를 위한 사회입양제도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사생아를 낳는 지경에 이르기전에 사전에 충분히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하나, 또한 아이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원치않는 결혼을 하게되는 불행한 일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5). 피임과 낙태

피임과 낙태는 매우 논쟁이 많은 주제이므로 청소년 성교육내용에 이 주제를 포함할 것인지, 포함시키려면 어느정도까지 다룰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무제한으로 성적 유혹을 받고 있으며, 부정확한 성적정보를 사실인양 믿고 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들은 피임의 목적, 피임방법, 피임방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보 또한 생리적 측면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무의식적 소망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도 언급하여 주어야 한다.

피임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할 수 있는 피임법(경구피임약의 복용, 자궁내 피임장치 삽입술, 살정용 Jelly를 바른 diaphragm의 삽입, 피임용 Jelly나 크림의 사용 및 기초체온측정법)과 남성이 할 수 있는 피임법(콘돔사용법, 성교중단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울러 피임에 대한 청소년의 견해와 태도를 표현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이 청소년에게 혼전성관계를 조장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사실 피임방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피임방법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으며, 피임은 100%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또한 낙태 또는 유산의 의미를 -태아가 모체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임신을 종결짓는것- 알고 있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행하는 유산은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는 치료적 유산과 불법유산이다. 치료적 유산이란 전문의의 판단하에 임부가 임신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임부의 건강에 위협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치료의 한부분으로 시행되는 유산을 뜻한다. 한편 불법유산이란 의학적 또는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없이 유산이 시행된 경우를 뜻한다. 특히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유산의 시도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것을 청소년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유산의 의미와 불법유산에 내포된 엄청난 위험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설명하여주는 것 이외에도 부모가

적절한 이유없이 태아의 생명을 종결짓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문제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카톨릭교와 일부 종교에서는 이러한 낙태행위는 인간의 권한밖인 생명에 관한 문제로 이를 범하는 것을 죄악시 하고 있다. 종교적 관점을 떠나서라도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기혼자든 미혼자든간에 법적, 의학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의 유산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6. 결혼과 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들의 전생애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배우자의 선택, 결혼생활이 주는 만족감의 정도는 행복과 자기성취,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주는 반면에 결혼은 또한 갑작스러운 불행, 좌절과 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같이 지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결혼은 아직도 아마추어의 장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종류의 직종에서 비숙련직종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직종에서 전문교육과 전문훈련과정이 필수요소가 되어 버렸다. 직업과 결혼을 동일한 차원에서 볼 수는 없으나 사실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술 못지 않게 결혼생활에도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 사랑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왔으며, 따라서 청소년들과 결혼을 앞둔 청춘남녀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 만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과정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허황된 믿음이 오늘날 높은 이혼율을 초래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절망속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과 청춘남녀들은 결혼생활과 부모됨을 위하여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며 교사와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이를 위하여 부모와 교사들은 ①학교, 교회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결혼과 성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하며 ②이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부모나 교사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③결혼과 부모됨에 필요한 적절한 도서를 선정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읽도록 권장하는 일등이라 할 수 있다.

1) 결혼의 의미에 대한 이해

인간은 여러 이유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랑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하여, 고독감과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적만족을 구하기 위해, 보호받기 위해, 사회적 위치와 명성을 얻기 위해, 모험삼아, 흥미로울 것 같아 등으로 다양하게 들 수 있다.

또한 결혼은 개인적 업적과 생산성을 증진시킬수도 있는 반면 이를 손상시킬수도 있다. 결혼은 또 부부의 사회생활이나 사회참여의 유형과 특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상에서 기술한 여러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자신의 원초적인 성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애정, 소속감, 독립, 성취, 인정, 자존감과 같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의 충족도 결혼생활에서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또한 개인적 성장과 인격적 발달을 포함한 자아실현 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은 또한 배우자에 대한, 부부간에, 넓게는 인류에 대한 이해와, 인생의 문제, 전반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해준다.

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결혼과 부모됨은 사회적, 정서적, 지적 성장을 증진시켜주는 교육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기적 목적에 역점을 둔 결혼생활은 불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많은 결혼이 개인적 성숙과 사회에 대한 봉사, 인류문화의 전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 가져다주는 큰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낭만적이고 허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결혼을 위한 준비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결혼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만 골몰하지 말고 그들이 결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정도 및 안정감, 풍부한 지적, 사회적 자원 또한 상대방에 대한 폭넓은 이해등이 포함된다 할 수 있다.

3) 열병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우리사회가 그간 대중매체등을 통하여 결혼의 낭만적 측면과 남녀의 연애사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주로 상대방의 외향적 조건 즉 외모에 반하여 생긴 열병과 보다 지속적이며 보다 깊은 내면적 뿌리를 갖고 있는 진정한 사랑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청소년기에 가장 전율을 느끼게 하는 체험중 하나는 이성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신체적, 감정적 이끌림을 보이는 이른바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청소년들은 여러번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서 열병은 항상 상대방을 이상화 시키며 사실은 상대방이 갖고 있지도 않은 매력이나 장점을 그들이 갖고 있는것 처럼 생각하게 된다. 청소년은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이에 전념하기 때문에 성인은 그들의 감정을 조롱하지 말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짧은 기간의 설레임과 쾌락을 줄 뿐인 열병과 평생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청소년이 기억하여야할 사랑과 열병의 차이이다.

- ① 사랑은 시간이 걸리고 서서히 깊어지는 반면, 열병은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다.
- ② 사랑은 여러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계속적으로 접한후 느끼게 되는 반면, 열병은 상대방의 성격, 습관, 태도와 같은 기본적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눈에 느끼게 된다.
- ③ 사랑은 상대방의 전인격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열병은 단지 외모나 사교성, 스포츠를 잘한다거나 등과 같은 몇몇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사랑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파악한 후 그를 이상화하는 반면, 열병은 상대방의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화 하게 된다.
- ⑤ 사랑은 상대방의 영원한 안녕을 걱정하고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베풀수 있는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반면, 열병은 자기중심적이며, 현재의 쾌락과 자신이 얻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 ⑥ 사랑은 자신감과 안정감,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반면, 열병은 소유욕과 질투, 지나친 환상을 보일 수

있다.

- ⑦ 사랑은 20대 이상과 같이 보다 높은 연령층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열병은 십대 초반과 같이 보다 저연령층에서 생길 수 있다.
- ⑧ 사랑은 보다 이성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와 타협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열병은 장애나 문제를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랑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사랑에 빠지는 것'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찾아온 신비한 마력 때문이라거나, 사랑은 건잡을 수 없으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없다거나, 영원히 오직 한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거나, 사랑은 대부분 신체적 접촉체험으로 느끼게 된다거나 또는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이라는 생각등이다. 그러나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배워가는 것 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이상에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 성교육 주제 및 주제별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중요한 점은 성교육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달주기별로 내용과 심도를 달리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개인차와 청소년 개인별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에 제시한 성교육 주제외에 다른 주제가 제시될 수 있으며 중학생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었던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이나 자위 행위와 같은 주제가 다른 각도에서 고교생에게도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준비된 교사와 성교육을 위한 교과목 시간이 없다는 것,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여건(입시위주의 교육), 또한 유해사회 환경이 청소년을 자극하는 악영향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해, 청소년 자신, 부모, 교사가 모두 감당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부모대상교육, 성교육자 양성과정을 위한 관련분야 학자간의 학제간 연구와 시범사업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 지역사회단체, 종교기관 및 정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민병근, 김현수(1992), 성비행 청소년의 가족역동, 신경정신의학 31(3), PP. 604-627.

Bernard, J. (1966), The Fourth Revolution,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XXII, No.2.

Reiss, I.L. (1967), Premarital Sexual Standards, SIECUS Discussion Guide No.5, New York,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S.

Laycock, S.R.(1973), Family living & Sex education, Mil-Mac Publications Ltd, Toronto, Canada.

Newman, B.M. & Newman, P.R.(1995). Development through Life-A Psychosocial Approach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U.S.A.

